

불교소비자운동 첫 결실

부도로 문닫은 '삼우화학' 2년만에 재기 종단협소비자위 불공정거래 중재나서

불교소비자보호운동이 첫 결실을 맺었다. 대기업의 일방적인 불공정거래로 도산했던 삼우화학(사장 배호성)이 불교계와 공동 노력으로 2년여만에 재기했다. 삼우화학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불기성 필름을 개발해 연간 4천만달러의 수입대체를 실현한 유아용 중소기업. 생산 전량을 유아용 기저귀와 여성용 생리대 등을 만드는 유한킴벌리에 납품하던 삼우화학은 96년 10월 부도라는 참사를 맞고 문을 닫고 말았다. 유한킴벌리의 일방적인 계약파기와 효성EASF의 불량 원자재 납품이 원인이었다. 사원들은 뿔뿔이 흩어져 제 갈

길을 갔지만 사장 배호성은 그냥 주저앉아 있을 수 없었다. 회사를 살리기 위해 공장장 박영춘 씨, 배영욱씨와 함께 유한킴벌리와 거래은행, 중소기업청을 밤낮 없이 찾아 다녔다. 실외에 젖어 하루하루를 보내던 배사장 일행은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산하 소비자보호위원회(위원장 효강·총지종 법장원장)와 인연을 맺은 지 2년 남짓만에 다시 일어났다. 소비위가 해당 기업에 시정요구 공문을 보내고 합의방문, 불매운동 등 '삼우화학 살리기운동'을 펼쳐 중재에 나서 삼우화학과 유한킴벌리가 협상에 들어간 것이다.

6개월간 거래조건 조절 끝에 합의한 배사장 일행은 지난해 말 경북 점촌 문경시에 소재한 예전의 공장을 다시 인수했다. 공장은 기계 및 설비점검이 마무리되는 대로 본격적으로 가동될 전망이다. 삼우화학은 정상적인 생산 체제에 들어가게 되면 늦어도 올 하반기에는 연간 120t을 생산, 미국의 D사, 한국의 대표적 페스트푸드 가공회사 N사 등 3~4곳의 제조회사에 전량 내수 또는 수출할 계획이다. "어느 누구도 희생 가능성을 점치지 않았던 삼우화학을 위해 불교계는 희망과 용기를 주며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며 "불

교이념대로 이윤을 사회이윤을 위해 되 쓰는 모범 불자기업이 되겠다." 소비위 산하 실적자들의 힘터 '오뚜기모임터'에서 공장 재가동을 위해 애썼던 2년여 시간을 잊을 수 없는 배사장, 배사장은 "불교소비자보호운동이 확대 '힘없고 돈없는' 기업과 사람들에게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소비위 서동식 기획실장은 "삼우화학의 사례는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소비자 안전과 권익향상을 위한 소비위 활동이 범종단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소비위는 96년 7월 발족해 불교소비자대학과 '오뚜기모임터' 운영, 아나바다운동, 순회강연 등을 펼치고 있다. **도필선 기자** (psdo@buddhan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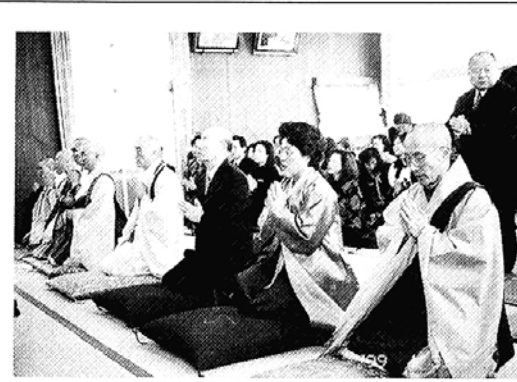
"젊은층 지식인 선수권 관심높다"

김상사 수련회 평가
김상사 수련회(원장 지옥)이 지난해 12월 25일~1월 30일까지 실시한 3박4일 겨울수련회 평가자료에 의하면 젊은층과 지식인층의 선 수련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김상사 수련회에는 전체 참가자 가운데 무종교인이 25%, 타종교인이 10%를 차지해, 선이 사회적으로도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은자 기자** (ejlee@buddhania.com)

뉴스 & 뉴스

27일 정계불자회 합동법회
정계불자회 합동법회가 열린다. 청와대불자회, 국민회의 연등회, 자민련불자회는 27일 오후 2시 조계사에서 신년하례 합동법회를 개최한다. 이날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인곡스님을 비롯한 각 종단 대표스님들과 각 불자회 회원 2백여명 등 총 5백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집권여당인 국민회의와 자민련 불자회가 공동으로 개최하고 청와대불자회가 함께 참여하는 이번 법회에서 고산스님이 법어를 한다. **김원우 기자**

중심회 새회장 못찾아 고심
조계종중앙신도회(회장공동직무대행 김한근, 총무진기)가 회장 임기만료(3월15일) 1개월을 남겨놓고도 대의원 총회 일정을 물론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논의할 운영위원회 개최 일자도 결정지 못해 회장 공백상태가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중앙신도회 사무국은 2월안에는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새 회장 적임자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총무원쪽도 몇몇 인사를 만나 회장직 수락 의사를 전했으나 접촉하는 인사마다 고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성운 기자**



도쿄의 한국절 명월사에서 예불을 올리고 있는 전년대통령 내외와 명월사주지 법인스님.

"부처님 가르침대로 따르니 남 원망하는 마음 사라졌다"

전두환 前대통령 방일 명월사 참배
사면복권 이후 불교계의 극난극복참회대회에 참석으로 공식활동을 시작한 전두환 前대통령은 15년만의 방일(訪日) 역시 절 참배로 시작했다. 1월31일 일본에 도착, 호텔에서 짐을 풀자마자 부인 이순자씨와 함께 도쿄(東京) 기타구 다바타의 한국절 명월사(주지 법인·전안 각원사주지) 법당에서 예불을 올린 전 前대통령은 간담회 자리에서 옛 일을 회상하며 배신감을 불신(佛心)으로 풀 최근 심경을 드러낸 인사말로 관심을 끌었다. 마치 법문처럼 이어진 인사말은 "을 2월이면 퇴임한지 12년째 되는데 그동안 외진 백담사에서 유쾌생활을 했고 그것도 모자라 2년이 넘게 옥고를 치르기도 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토로하면서 화기에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위영란 기자** (yryui@buddhania.com)

혜불 세계적 관심사로

미종교학회, WCC등에 유감표명
한국정부에 항의서한도 보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혜불사건이 세계 주요언론의 관심사가 되며 이어 미국 종교학회가 한국 정부와 혜불사건 법인 또는 용의자가 소속된 보수적 개신교단, 세계기독교교회협의회(WCC)에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키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학회의 회원인 진월스님은 "이 일같은 움직임은 종교관행에 대한 학회(공공위원장 원혜, 송강스님)에 일했다. 미국 종교학회는 한국 정부에 보내는 항의서한에 혜불이라는 거처구니없는 일이 잇따라 발생했는데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보수적 개신교단과 WCC에는 차종교 상징물과 신도에 대한 공격은 비기독교적 행위를 강조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nia.com)

정암사 수마노탑 기단 균열

탐신·옥개석 등 백화현상...복구 시급
정선 정암사(주지 화광) 수마노탑(보물 제 410호)이 복원공사 후 탐 하단부가 하얗게 변하는 백화현상이 나타나고 탐 아래부분이 벌어지는 등 복구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암사 수마노탑은 지대석 균열로 1·3·4층 탐신과 옥개부면적 이탈 등 훼손이 심해 95년 6월 정선군이 1억6천만원 들여 7층탑 전체를 해체 복원했다. 해체 복원공사를 한 지 2년만에 수마노탑은 탐신과 옥개석에 빗물이 스며들어 내부에 채워 넣은 석회가 흘러내리는 백화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단부 1층 탐신부분 일부와 중앙면 관석부분에 이완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표면 곳곳이 떨어지는 등 훼손이 가중되고 있다. 지역문화재 관계자들은 "흘러내린 강회를 세척하거나 수시 관찰 등 소극적인 대처보다 탐 전체를 보호할 수 있는 시설물을 갖춰 소중한 유산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마노탑은 선덕여왕 12년(643년) 자장율사가 정암사를 창건후 부처님 진신시리를 봉안하기 위해 6월 열린 제16차 총회에서 이상대 회장에 대한 공개질의서에서를 내놓고, '불신임안'을 제언했다. **김중근 기자**

대불청 내분 가시화

대의원총회서 '회장 불신임안' 논의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이상대, 이하 대불청)에 내분이 일고 있다. 대불청 대의원들은 1월 30~31일 열린 제16차 총회에서 이상대 회장에 대한 공개질의서에서를 내놓고, '불신임안'을 제언했다. 경기·서울·경북·대구지구에서 배포한 공개질의서는 '종단과의 관계악화' '만해대학 운영실패' '법인화 과정에서 벗어난 물음' 등에 대한 이회장의 입장을 묻고 있다. 대불청은 매년 조계종 총무원 **조종우 기자** (gobaou@buddhania.com)

"제2 정화불사 매진"

정화회장 도성스님 성명
정화회장의 외장 도성스님은 1월 30일 성명을 통해 "월하 중정예하가 교시한 제2 정화만이 유일한 대안으로 믿고, 전국적으로 쟁기하여 불기의 병폐들을 척결하겠다"며 "제2 정화불사 성취를 위해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성스님은 성명에서 현재의 조계종단이란 안고 있는 문제를 △종교와 이권을 탐하는 승려들의 증가 △위계질서의식 실종 및 화합 파괴 △개인적 승려들의 증가 △세력있는 문종이 주지직과 총무직 독점 △스님들의 노후 복지 전무 등 다섯 가지로 규정했다. **정성운 기자**

두가지의 크고 불가사의한 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팔괘(八卦) 만다라 액자의 신비(神祕)"

우연히 발견된 팔괘 만다라 액자의 신비스러운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 만다라는 제불보살님과 신(神)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역 공간으로서 이는 살아 있는 우주의 삼라만상 그 자체이며, 우주의 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다라가 있는 곳에는 항상 우주의 충만한 생기(生氣)가 가득 모여 있습니다. 집안에 만다라를 걸게 함은 이러한 우주의 기(氣)가 집안에 가득 차게 합니다. 그러나 만다라 자체만 걸어 놓으면 상스러운 우주의 생기가 그 안에서 그대로 머물고 있는 상태로 지속되기 때문에 이 기(氣)를 끌어내어 집안 전체에 기(氣)를 고르게 확산시키는 방법으로 팔괘를 도입하여 합일시킨 결과, 놀랍게도 불가사의하고 신비스러운 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팔괘 만다라 액자

◎ 소재
· 팔괘: 고급 나무 목판 팔각형
· 만다라: 알미늄판에 직접 색채 도안 조성
※ 그 위에 유리보더 더 깨끗하고 투명하며 깨지지 않는 영구적인 특수기법처리

규격: 45cm x 45cm

◎ 보급가: ₩ 300,000 ⇒ ₩ 150,000
(그동안 30만원에 보급했던것을, 이제 15만원에 보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급처: **성지관음회** (회장 혜천)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0335) 34-9490, 34-9491
야간: (0342) 706-3060

신비한 작용

첫째 가정, 사무실, 사업체 등에 걸어 놓은 결과 사악한 기운을 추방하고 불길한 운세를 흡수시키면서 악하고 침체된 기(氣)를 활성화시키고 강화시켜 사업이 활발해지고 재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음식이나 가계 등에 걸어 놓으니, 외부의 좋은 기를 끌어당기는 영향 때문인지 고객과 돈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둘째 집안의 현란, 거실, 안방에 걸어 놓으니 집안 전체에 흐르는 기의 영향이 완전히 차차되는 작용이 일어났습니다.
(이 실험을 직접해 본 집에서는 방마다 깔아놓았던 동판을 모두 걷어내고 있습니다.)

◎ 팔괘 만다라의 수백 차단 실험은 2명의 수백 전문가를 초빙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실험 테스트를 거친 결과로서 불가사의한 이 현상을 믿지 않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 팔괘 만다라 액자는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외양을 갖추고 있어 어느 가정이나 사무실에 걸어 놓아도 어울리는 분위기를 자아내도록 조성되었습니다.

· 불자들의 선물·생일선물·개업선물·집들이 선물
· 연말연시 선물 등으로도 단순한 액자가 아닌 행운과 재운과 건강을 불러오고 보장해주는 액자라는 점에서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물론 우선적으로 자신의 집에는 팔괘 걸어 놓으시는 것은 잊지마십시오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혜천법사

"풍수원리에 맞지않는 주택이나 상가, 사무실등에 적용하면 재운과 복을 일으키는 운세로 바꾸어 놓고,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에 적용하면 생기가있는 땅의 명당자리 산소로 변하게 하는 방법이 수록된 책자"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책자내용

- 1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 2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 3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 4 팔괘의 상정에 대한 설명
- 5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 6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 7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 8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 9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 10 음택(산소)풍수에 적용하면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 불탑다라니의 신비
- 11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의 산소적용방법
- 12 이장의 문제점과 그해결 방안으로서의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 처방비법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 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혜천법사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이책은 영가의 장례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자내용

- 1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2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3 영가천도는 왜 필수 해주어야 하는가?
- 4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 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 5 조상대, 친족, 연족, 일체지 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 6 특별 천도제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 7 각 방편들의 내용설명 및 사용방법.
- 8 집안에서 하는 영가 천도 기도방법.
- 9 영가들의 특별천도제를 지낸후 시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10 특별 천도제를 지내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0335) 34-9490, 34-9491
야간: (0342) 706-3060